

###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불사음계의 문화

불사음계란 불음(不誦)계에 대비된다. 사탄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정당한 음행은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가자들의 5계에서는 불음계가 아니라 불사음계가 된다. 적어도 재가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므로 교단의 역사 또한 계승될 수 있는 것이다. 불사음계는 철저한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있다.

인도 사회에는 일부일처제도 이외에 일부다처제도 내지 일처다부제도의 역사도 있다. 인도 문화의 주류인 아리안 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일처다부제도가 있었으며, 아리안 문화의 정착과 남성위주 사회문화의 확립은 일부다처제를 산출하게 된다. 마리노브스카라는 소련의 사회학자가 저술한 <미개인의 성생활>이라는 저서에 의하면 원시사회일 수록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하며, 특히 한 여성을 중심으로 많은 남성이 관계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는 남방제도의 여러 부족들의 삶을 다년간 관찰한 뒤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절찬을 받았다.

모계사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정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는 아리안문화가 정착되어 상층부인 바라문 종성과 크사트리아 종성은 부계 중심의 가족문화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바이사나 수드라 등의 하층민들엔 아직 여성 위주의 모계 유습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가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라문종성 출신이나 크사트리아 종성 출신들뿐이다. 목련존자로 알려진 목갈라나뭇타, 사리뭇타(사리불), 카차야나뭇타(가전연) 등은 부계를 알 수 없는 하층민 출신이었다. 뭇타란 아들이란 의미이며, 앞에 붙은 호칭은 어머니의 이름이다. 결국 목갈라나라는 여인의 아들,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카차야나라는 여인의 아들이란 뜻이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모계사회의 유습이 하층민 사회 속에는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인도사회의 이상과 같은 가족문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층민의 여성들은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의 아기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상층민의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을 소유하려고 했다. 요즘처럼 장가 못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서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철저

### 인도 남성위주 가족문화 타파겨냥

#### 일부일처제 지향...남녀의 정숙 강조

착생활을 하기 이전, 인간의 삶이란 필연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뒤에 불의 발견과 그루갈이의 등장은 정좌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남성위주의 사회가 전개된다. 남성 위주의 등장은 이전의 문화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회적 도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노동력을 독점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기도 했다. 여성의 생산능력을 독점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 그것은 어쩌면 남성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내지 지배 권력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회문화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이다. 여기서 일부다처제도는 힘 있는 사람이 여성의 생산력을 독점하여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보존 내지 확대하려는 발상인 것이었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결혼이란 제도의 역사를 대략 3천년 정도 된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부터 대략 3천년 정도 이전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했던 시기보다 2-3세기 이전이

한 일부일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사음계의 규범화이다. 고려 중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미망인들이 증가하여 국가적인 문제가 되자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의 여성들이 데모를 일으켜 법제화되는 것을 막는데, 이것 역시 불사음계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선생경>에 의하면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위엄을 지키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으며, 여자가 지켜야 할 덕목에는 '만 남자를 생각지 말고 얼굴을 붉히며 다투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 이 역시 불사음계와 직결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일부일처제도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동거, 자유연애 등 과거의 결혼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 내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한 사실은 이혼율이 높으면 높은수록 현재의 결혼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혹자는 커플터에 의한 중매와 결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속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결혼제도가 바뀐다면 불사음계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지 삼일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스스로 물을 마셔봐야 찬지 더운지 알듯이 깨달음이란 완전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모든 외재하는 사물은 우리를 참모습의 그림자이며 모든 외적인 교리는 자성(自性)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아리나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성을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무엇이 참된 자인지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참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에 의해 건강이 좁막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잉은 몸에 큰 변조(變調)를 가져온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自律神經失調症)'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근대화의 산물로서 인위적으로는 예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에 질려, 스트레스 해소를 단념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참선(參禪)이 특



◁목우임을 배경으로 한 스님의 모습. 차마의 곡선과 스님의 은화한 미소가 돋보인다.

약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선을 하면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일파상태로 참진해 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율신경도 강하게 작용해 뇌에서 분비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각종 호르몬을 대량 분비시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성인병, 심인증(心因症)을 치료하는데 기여합니다.

선은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환한 길을 가르칩니다. 즉 선은 우리들 각자 속에 본래 자연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모든 정신 활동은 이제 열쇠처럼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보다 더 평화로워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삶의 색조가 바뀔 것이다. 선 속에는 무엇인가 젊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 봄날의 꽃들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며 계곡의 시냇물은 더 신선하고 맑게 보일 것이다."

선 중에는 공안 즉 화두를 드는 선도 있고, 묵주하는 선도 있고, 염불하는 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즉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면 편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느 보살님이 와서 제게, '어느 큰스님이 염불은 그저 하근기 중생이 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염불선' 과

## 24시간 모두가 禪

### 일행 삼매로 깨달음을...

'염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염불은 부처를 자기 밖에서 구하고 또 극락 세계를 자기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염불선은 '자기 마음 분바탕이 바로 부처라', '극락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알고 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조용하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시간도 자기 생활 중 한가한 시간이면 좋고 저녁때나 새벽이면 좋습니다. 다만 참선을 하려면 자세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자세가 안정되면 다음은 호흡 조절(調息), 마음 안정(調心)의 순

입니다. '다선일미(茶禪一味)' 라는 말을 선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모두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은 보행 즉 걷는 것을 뜻하고, '주'는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걸으나, 서나 앉으나, 누우나 모두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활하는 24시간 내내 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늘 일상삼매 일행삼매 한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재가자들이 시민선방에서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일입니다. 공부는 지속돼야 하는데, 시민선방이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중국 도연명은 화장실이나 마구간에서도 좋은 작품을 썼습니다. 시민선방에서 간화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김수

### "스트레스 해소 참선이 특효약"

#### 유아때부터 집중방법 가르쳐야

서로 진행합니다. 참선할 때는 '일상삼매(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 해야 합니다. 일상삼매란 '여묘포사(如猫捕鼠)'와 같습니다. 즉 고양이는 쥐를 사냥할 때 한눈팔지 않고 사력을 다해 쥐구멍을 노립니다.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쥐 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참선할 때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거기에다 딱 마음을 안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일행삼매는 '어계포탄(如鷄捕卵)'과 같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참선에 들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오래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한부로 퍼덕거리면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아 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지 우주를 부처로 보지는 못해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것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항상 느끼고 있으면 그 때 번뇌가 녹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삼매의 경지를 맛보지 못해 참선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자고 있을 때 외에 항상 무슨 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거나, 듣거나, 웃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성을 자극해주는 염불선도 좋습니다. 염불선은 지(知)와 정(情)과 의(意)를 모두 조화롭게 구하는 선법입니다.

다만 재가자들이 수행할 때 '별시(別示) 수행'이 필요합니다. 별시 수행이란 대중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행하다보면 자칫 게을러지고 의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달이고 두 달이고 몇



◁스님은 목우임을 아래 차밭을 일구며 다선일미(茶禪一味)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계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업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물 또는 나무뿌리가 잠병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청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범사

###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범이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현몽으로 점포 이루는 분
- 범이더 기어놀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않은 행동을 한다든지, 방전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 대구 대승불교대학 · 정토사 범음·범띠 수강생모집

대승 불교사상의 진수부 배울 수 있는 열린 기도전법도량 대승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식 전반에 걸친 강좌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일반 재가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강의내용**
- ▶ 기초과정(3개월) : 도량석, 아침종상, 예불, 상강례, 사시불공, 산중기도, 자장불공
  - ▶ 전문과정(1년) : 관육, 대령, 전시식, 관음시식, 시다림 의식, 구명시식, 예수재 의식
  - ▶ 기타강좌 : 천수바라, 나비춤, 복다루기, 경쇠, 징, 목탁 치는 법 등

**강의장소**

- ▶ 대승불교대학 3층 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원동 율촌지하철역 사거리)

**개강일시**

- ▶ 2003년 8월 말(수시모집)

**강의시간**

-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4시간) 전문반
-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3시간) 기초염불반

**대승불교대학 중무소 전 화 053)622-0333**  
휴대폰 011-699-9120

### 불교, 한방, 심리학 및 대체의학 전수자모집

현재 불교 포교사 활동 중인 분이나 스님 또는 앞으로 포교사 활동 예정인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세울분들에 한함!

**수행과제**

1. 경략학, 기치로 원리 및 실기, 심리학, 대체의학 불가의 비전술 오행환술 신체교정운동법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정질환 중풍 예방법 전수 각종 난치 질환 신병 귀신병(빙의)
2. 오행기전점법 (상대의 목소리만으로도 현재 아픈 곳 진단가능) 원거리氣방사법(멀리있는 상대에게 기운 운공가능법)

**수행과정**

천기운행법으로 상대를 정확히 알수있는 지상 최고의 육동법(육명동) 일반역학과는 차원이 완전히 틀림

- ▶ 과 정 : 3개월 (1개월 속성코스도 있음)
- ▶ 강의료 : 3개월 300만원

**절에서 일하실 20세 ~ 25세 女구암 (0명) 보수 : 월 60 ~ 80만원 사이**

- ▶ 자격 :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에 한하고, 기수련자는 특기 환영

**대한불교계종 수도암**  
**창원포교당 향 선 사 지도법사님 도 안**  
TEL : (055)276-9855 / 직통 : 016-726-0830

###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귀의 산보 허용입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지희는 초기 티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늘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정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해는 앙상하시고는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인 생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늘음이 없고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색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이다수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이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부처님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등(초)모체 표현한 상징물입니다. 늘 합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들어 주십시오. **담양는 정성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당 및 가정에 백일기도 일일기도 1인 인등으로 최고 전기로 저렴 환단기종 500원

**◆ 불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 향기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장미, 장미, 카라 등이 있습니다.

연꽃소 도마뱀 벌 국화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기나공예양초** 서울시 도봉구 병문 2동 81-19번지 사무실 02)1996-8830 / 공경 02)1997-2801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사상 백고좌

금산스님

(목포 목우암 회주)



◇ '일상심매'와 '일행심매'를 강조하시는 스님.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듯,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정진하라고 지적한다.

주지 덕성 스님이 본 금산 스님

금산 스님을 친견하던 중 한 스님이 들어왔다. 주지 덕성 스님이었다. 덕성 스님은 막 한겨울을 마치고 다시 목우암으로 돌아온 것이다. 덕성 스님이 금산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약 14년 전. 당시만 해도 금산 스님은 공부하는 수와 들에게는 한 여름에도 서릿발이 내리는 것처럼 엄했지만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귀띔한다. 하지만 신도들에게는 늘 미소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한다. 금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더니 선배 수행자에 대한 예를 먼저 갖 준다. 금산스님이 항상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절었을 때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 도 들었다며 선(禪)과 교(敎)를 겸비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에 관한 일화를 들려준다. 비구와 대제 분규 시, 스님은 혼자 구메 회염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회염사에 기거하며 사하촌에

이 함께 모여 수행을 해야 합니다. 대중이 곧 선지식이고 대중의 힘으로 정진하다보면 올바른 수행습관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또 즐락동시(淸嘍同時)라는 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즐(淸)은 병아리가 부화되려 할 때

스스로 깨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 돌아보고

좋은 스승 가르침 받길...

알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탁(啄)이란 어미가 알을 깨려고 껍질을 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깨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정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일본 동경대학 교수인 시로야마(白山) 박사는 고승들이 참선할 때 뇌파를 측정해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선은 뇌 전체를 이완시키고 동시에 오른쪽 뇌를 활용하고, 또한 유산소 운동인 점에서 볼 때 심신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바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현대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불가에서도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인가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참선은 우리시대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참선은 유아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불자는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成佛)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불도를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함께 불도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 유명한 목사를 백악관에 데리고 왔습니다. 개신교의 십계명 중 제일이 불살생(不殺生)이기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부시 대통령에게 사탄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남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 사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성불합시다.

정리=남동우 기자 dwnam@buddhe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epia.com



◇ 주지 덕성(왼쪽)스님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모습.

들이랑 씨를 타오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곤 했다. 몽만면 사람들과 함께 조업을 설립할 기회를 할 생각이 있다. 다산일어(茶禪一如)를 몸소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28년에 태어난 스님은 1956년 월정사에서 지암(智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법명은 상지(尙志), 법호는 금산(金山). 31안가를 성만했으며 월출산 도갑사 주지,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조사국장 감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리산 화엄사 주지와 동리산 태안사 금강선원장,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 미주 삼보사 금강선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 목우암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차발가꾸 재정자립·다선일여 몸소실천

방을 마련한 뒤 대저승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주시켰다고 한다. 당시 폭력으로 점철했던 다른 사찰과 달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정화할 했던 것이다.

금산 스님은 20대 초반에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

다고 한다. 기독교 사상에 접해보고 여러 가지 사상을 접했지만 의심을 품지 못했다고 한다. 깊숙한 산골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해 출가했다.

금산 스님은 목우암 아래 차밭을 마련했다. 사찰 재정 자립을 위해서다. 농촌지도소를 다니면서 거



현원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호스님

통도사 강원에서 같이 수학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정호 스님이다. 강원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코피가 터질 정도로 다툼 적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나이도 들었고 같이 포교하며 타마해야 하는 공통점이 많아 서로 이해하며 살아오고 있다.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정호스님은 오산 대각사에 주석하고 있다) 자주 만나 차도 한잔 하면서 속을 털어 놓곤 한다.

오산은 미군부대 주둔지라 교회가 많은 곳 중 하나이다 보니 교회에 나가야 천당간다는 이야기가 일상사처럼 퍼져있어 불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이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17년동안이나 꿋꿋이 정호 스님은 포교에 헌신해 왔다.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차근차근 이해시키며 불자로 만들곤 했다. 첫 인상부터가 자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정호 스님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절로 귀를 열게 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상대방으로



그림·문병성

하여금 불교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탁월한 대중 포교 능력이 있는 정호스님이야말로 포교사가 천직인 것 같다. 35평 작은 포교당에서 신도가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고, 포교하는 자체가 수행이라며 17년동안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회선을 다해 오고 있는 스님이 바로 정호 스님이다.

대각사의 어린이 법회는 유명하다. 절에 온 아이들의 이름과 그 부모 이름을 누구보다 빨리 외워 당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스님은 어린이 포교 비결에 대해 "그저 꾸준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절에 오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배풀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법회에 다녔던 아이들이 지라 이제는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스님은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새싹포교가 중요하다"며, 각절마다 어린이포교에 관심을 가질것을 강조한다. 지금도 포교당에서 어린이들이 "저요, 저요" 손을 흔들

며 "부처님은 왜 머리를 깎았어요?" 등 천진한 물음에 연신 땀을 흘리고 있을 정호스님은 지역의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지금이야 많은 이들이 환경보전운동에 눈을 뜨고 환경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환경운동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참여하기도 꺼려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의 종교인들과 함께 환경운동에 나섰다. 뜻있는 젊은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해결에 앞장서곤 했다. 지역에 미군 비행장이 있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 없었지만 스님은, 헬기가 왕성하게 날치는 젊은이들에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바쁘게 뛰어다니며 존재자 역할도 해 왔다. 스님은 '오산·화성 환경운동 연합'의 발기인이면서 현재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포교당은 포교의 최전선이니만큼 어려움이 한풀이 아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생긴다. 조용한 산사에서 화두 들며 살고 싶지만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절대 모를 비밀이 있어서 아직도 못 간다. 다 떨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

불모지 오산서 佛法전하기 17년

환경운동·어린이 포교도 주력

이들이 절 입구에 와서 '예수 믿고 천당가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곤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에 백신수사를 맞은 듯, 그때 우리 같은 포교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다 하고 힘을 내곤 한다.

얼마전 정호스님 절에 갔었다. 스님들은 아이들을 몇 명 키우고 있다. 비구절에서만 크다 보니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워서 인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썽을 피우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 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다. 어렸을 때나 도 당시 어른 스님들 속을 얼마나 썩혔을까 혼자 헤아리며 속으로 웃었다.

언젠가는 나도 오 같게 없는 아이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정호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문서 포교에도 몰두하고 있다. 스님이 쓴 <별거벗은 주지스님>을 군법당에 보시하며 군인들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일로정진 수행하는 정호스님을 내가 이 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 곳곳에서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스님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산속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 본당 연화사 주지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수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 ~ 9시)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미술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나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들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8월 30일 토요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 (4시 30분) 출발 ->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문의 : 양 현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안일정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중점까지 전화 요청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는 세상의 재물을 억만장자식 돈으로 바꾸어 주는 힘이 있기에 태어났습니다.
재물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인물은 양이 부족하여 늘 저 속은 불타듯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 키우는 과학적 최음으로 천천히 늘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초를 확실하게 해 있는 것으로 인한 불면증, 두통, 두근거림, 불안, 미나리, 당뇨로 인해 교란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늬의 영양과민증을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온 밸런스 100mg 90 cap x 9주
9주 동안 1회 1회씩
다온 밸런스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경년적 장애 등
\* 자율신경장애
\* 당뇨병, 비만증, 부종, 혈액순환
\* 강기에 걸리지 않는 체중의 개선
\* 경막두근, 손, 발가락의
\* 카복을 잃고 뇌를 잃게 해줌
\* 카복을 잃을때 꼭 드셔야 해줌
\* 알, 안질환, 고혈압
조원케이칼리프 Co.
(주)반도체약학수사팀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컨 실 080-598-9832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료 (플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주사
특징 - 세탁시 플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염머플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 (모직외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방 · 손기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길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100)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명가의 명향 - 건강향
2003년 3월 5일 'MBC 6mm 세상' 방영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옥계, 안식향, 용뇌, 목향, 퇴향의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도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5분향
생기향
추석맞이 최고의 선물!!
무명장수베게
백하, 귀환, 강활, 방풍, 당귀, 천궁, 석창포, 오수유, 만홍차와 기타 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 당도 · 중풍 · 폐 · 간 · 성질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물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하십시오.
대리점 모집
☎ 02) 538-7161 / 3210-0880
강남대리점 02)511-4240 독립문 대리점 02)733-4440